

## 절세위인을 모시여 행성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

오늘 공화국은 인류사상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인민도 헤쳐 보지 못한 사상초유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민족사상 최상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이 행성위에 자기의 용자를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남들같으면 열백번은 더 주저앉았을 시련이고 다른 민족이라면 맞받아갈 용기조차 별수 없을 난관이다.

하지만 공화국은 단 한순간의 주춤도 모르고 휘황한 미래를 향해 질풍노도처럼 내달리고있다.

날로 더욱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힘, 불요불굴하는 인민의 정신, 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다 못해 자기의 성과 이름마저 빼앗겼던 인민, 그래서 약소국, 식민지민족으로 불리우던 이 나라 인민이었다.

그 비참했던 어제의날의 조선이 오늘은 자주의 강국으로 행성에 빛을 뿌리고있다.

지금도 누구나의 귀전에 쟁쟁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었지만 려장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의날의 약소국이 오늘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긍지높이 선언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그 음성이다.

돌아보면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민족자주정신, 조선민족제일의 주의정신에 기초하여 오래동안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기성의 편견을 깨고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특징을 새롭게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어느한 일군을 만나신 자리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잡한것은 우리 나라가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있거나 대국을 잠에 끼여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가 대국들을 움직일수 있는 전략적요충지를 타고앉았기때문이라고 나라의 지정학적특징을 명철히 밝혀주시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을 중심에 놓고 나라와 민족의 이익의 견지에서 보고 판단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투철한 자주사상의 표출이었다.

공화국의 전 행로가 그러하였지만 지난 10년간은 민족자주, 민족자존의 정신이 남김없이 파시되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우주만리에 뻗친 격동적인 나날들이었다.

공화국을 무적의 강국으로 일떠세워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민족의 휘황한 천만년미래를 확고히 담보하실

같은 신념으로 국가력무력완성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떠내고 강국건설의 려정을 앞장서 헤쳐 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가슴속에는 이런 불같은 의지가 소용돌이 자리 잡고있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하고 우선 강해지고야 한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영원한 만복이 깃들듯이 나라도 강국부터 되어야 할수 있다.

자주의 강국인 우리에게는 존엄이 생명이며 존엄을 잃고서는 살수 없다는 억척불변의 신조를 지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쉬임없이 국력강화의 길을 걷고계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원단을 내리기도 힘겹지만 실천하기는 몇천몇만배 강고한 핵 무력완성의 그 길을 단호히 앞장서 헤쳐시며 눈물겨운 헌신의 발걸음으로 공화국의 힘을 더해주시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

위험천만한 화선에도 서슴없이 나가시어 국방과학자들과 생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희생적인 헌신의 걸음걸음에서 《화제록탄》, 《절대병기》 일련의 대륙을 짊어보고 잠수함발사탄도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도 태어났다.

어제서이던가. 《11월대사변》이라는 이 말을 외을 때마다 누구나의 가슴이 그리도 세차게 높뛰는것은

해마다 11월이 오면 우리 민족 누구나 《시일야방성대곡》의 뼈저린 아픔을 되새겨보곤 한다.

같은 신념으로 국가력무력완성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존엄과 명예를 떠내고 강국건설의 려정을 앞장서 헤쳐 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가슴속에는 이런 불같은 의지가 소용돌이 자리 잡고있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하고 우선 강해지고야 한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영원한 만복이 깃들듯이 나라도 강국부터 되어야 할수 있다.

《을사5조약》의 강도적날조로 우리 민족은 자주권과 존엄을 깎아내리고 근 반세기동안 침략자의 발밑에 신음해야만 하였다.

그 11월부터 110여년만에 어제날 화승총을 부여안고 망국의 피눈물을 쏟아야만 했던 약소국이 최강의 자위적역력을 가진 강대한 나라로 자기의 위상을 한껏 떨치었다.

11월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아로새긴 긍지높고 영광스러운 강국의 달로 새롭게 아로새겨졌다.

세界的 지도를 펼치고 임의의 어느 대륙을 짊어보라. 도대체 오늘까지도, 지금 이 시각에도 전란과 동란, 대결과 위기, 참사와 불행으로 요동치고 신음하지 않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상은 존엄과 굴종, 삶과 죽음, 그리고 전쟁을 하고있지만 공화국인민은 평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존엄높고 값높은 삶을 누리고있다.

존엄은 언제나 힘을 요구한다. 강은 피로써 얻는것이요 백년대

계를 낳지만 강이 없는 부는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

바로 그래서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야 부국이 있고 존엄이 있는것이다.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용감히 쓰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의 시험발사에 관한 문건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기신 글말이다.

그 거대한 력사적사건을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찬신만고를 닮아 마련해주시었으면, 또한 거기에 얼마나 크나큰 의미를 부여하시었으면 경애하는 원수님 이런 피가 뛰는 친필명령을 하달하시었으랴.

백두산악과 같이 억년 드물지 않는 자주적신념과 배짱으로 어떤 세력이든 감히 공화국의 근근이와 침략하러든다면, 공화국본국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런 세력은 소멸될것이라고 하신 지난 4월의 열병식장에서의 위대한 선언이 이어 지난 9월 공화국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도록 하시어 나라의 자주적존엄과 백절불굴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

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민족자존은 굽어죽고 열어죽을 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민족자존은 목숨보다 귀중하며 그것을 잃게 되면 나중에는 국가도 인민도 모든것을 다 잃게 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나라 인민의 심장을 광광 울려준다.

자존과 의존, 글자로 따지면 단 한글자 차이이지만 그 종착점은 주인과 노예, 독립과 예속, 강국과 망국이라는 심각한고도 첨예한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남을 바라보는것을 절대로 허용치 않았고 자강력제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였고 강인담대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이었다.

모두가 기쁨속에 울고있던 성공의 그 시각 격정속에 눈물겹게 안겨온것은 나라와 인민을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기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였고 강인담대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이었다.

가슴터질듯 부푸는 긍지와 신심을 안고 격정으로 불덩이같은 심장에 조아박은 자강력의 정신을 총분출시키며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를 따라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들을 다발적으로, 려계로 이루어져온 공화국의 지난 10년이었다.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해졌지만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남들이 보란듯이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손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한 공화국이였다.

그러게 비롯된 공화국의 자주기상이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있다.

결코 령도의 광대성이나 려사의 유구성, 인구가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을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령도자를 모시고있는가 하는것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이 공화국의 자랑찬 려사가 실증해준 진리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 누구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참다운 삶도 행복도 영광도 있으며 후손만대의 번영도 있었다는 신념, 바로 그 길 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백전백승하는 걸이라

는 철리, 공화국은 온 세대가 우러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위용떨치리라는 확신이 억척같이 자리 잡고있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이 조선은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이다.

2월 7일 공화국의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공적인 발사라는 려사적사건을 안아왔다.

단 몇차례의 시험위성발사에 이어 지구관측위성으로의 도약, 경사궤도위성으로부터 극궤도위성으로의 급격한 발전, 그것은 위대한 강국으로 뛰어오르는 조선 식미약의 궤도인 동시에 공화국의 자주정신과 창조적합의 일대파시였다.

모두가 기쁨속에 울고있던 성공의 그 시각 격정속에 눈물겹게 안겨온것은 나라와 인민을 세계의 상상봉에 우뚝 올려세우기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였고 강인담대한 자주적신념과 배짱이었다.

가슴터질듯 부푸는 긍지와 신심을 안고 격정으로 불덩이같은 심장에 조아박은 자강력의 정신을 총분출시키며 경애하는 그이의 령도를 따라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들을 다발적으로, 려계로 이루어져온 공화국의 지난 10년이었다.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해졌지만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남들이 보란듯이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손으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한 공화국이였다.

그러게 비롯된 공화국의 자주기상이다.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있다.

결코 령도의 광대성이나 려사의 유구성, 인구가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을 규정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령도자를 모시고있는가 하는것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이 공화국의 자랑찬 려사가 실증해준 진리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 누구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참다운 삶도 행복도 영광도 있으며 후손만대의 번영도 있었다는 신념, 바로 그 길 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백전백승하는 걸이라

는 철리, 공화국은 온 세대가 우러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위용떨치리라는 확신이 억척같이 자리 잡고있다.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이 조선은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손지성



## 117년전 망국조약이 되친 비탄의 통곡소리

《...아, 분하도다. 이제는 노예가 된 우리 2천만동포여, 살았다고 하겠는가, 죽었다고 하겠는가.

...통분하고 통분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것은 1905년 11월 20일부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본설 《시일야방성대곡》(이날에 소리내어 크게 통곡하노라)의 한 대목이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처지로 굴러떨어지게 된 조선민족의 비통한 심정과 울분이 자자구구 승배인 글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려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이 섬나라 오랑캐무리들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상가집 개간도 못한 노예의 신세가 되었으니 그 원통함이 어찌 강산에 사무치지 않을수 있으랴.

삼천년 강산이 울음과 더불어 변하였고 눈물은 강물을 이루었다.

거리와 골목, 마을과 집 어디서나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망국의 한을 터뜨리는 백성들의 눈물겨운 광경이 펼쳐졌다.

민족의 려사 반만년에 이런 참변이 빚어질줄 과연 누가 알았으랴.

애국적인 지사들은 자결로써 망국의 한을 씻으려 하였으나 나라를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멀고먼 이역방으로 흘러갔다.

20세기초 조선의 비참한 모습은 힘이 약한탓에 겪어야 했던 약소민족의 가슴아픈 치욕이고 비극이었다.

일제는 황궁을 무력으로 겹겹이 에워싸고 황제와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종칼로 위협하며 망국조약을 강박했다. 반대하는 대신들은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고종황제가 《조약》날조를 끝까지 반대하며 《백성들의 의향》을 물어야 한다고 하자 《헌법정치》가 아닌 《군주전제국》에서 《백성들의 의향은 기피한 만민일》이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강요했다.

이렇게 누구도 원치 않은 망국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국력이 약한탓에 어쩔수없이 강요당해야만 했던 비극적현실이었다.

1905년에 이르러 일본은 6 000t급이상의 최신군함만도 12척, 현대적무장을 갖춘 20만명의 육군상비무력을 가지고있었다. 당시 서울에 기어든 일본군의 병력은 보병 3만명, 기병 800명, 포병이 5 000명이나 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군대의 병력수는 서울에 2개 연대 5 000명과 지방에 8개 대대 약 2 000명을 합쳐 7 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기본적인 무장장비도 창과 활, 화승대였다.

20만명 대 7 000명, 대포 대 화승총.

이것이 당시 조선과 일본의 군력실태였다.

이런 실태에도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수 있었겠는가. 20세기초 망국조선에서 터져나온 눈물과 비탄의 통곡소리는 힘이 없어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신세가 된 겨레의 눈물이였고 곡성이였다.

하기에 을사년의 피의 교훈은 오늘날도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을 이렇게 쿵쿵 울려주고있다.

자기를 지키려면 강해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 강국의 공민들이 웨치는 환호성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맞이하며 진행된 심야열병식이 준 총중은 오늘날도 광복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있다.

열병식연단에 서시는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강국의 인민들이 리친 우렁찬 환호성.

지심을 뒤흔들며 나아가던 정예무력의 종대와 종대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죄주먹인 주력방공중대와 세계최강의 병종인 포병부력, 세상에 없는 조선의 절대병기의 하나인 초대형방사포중대를 비롯한

위력한 첨단무장장비들... 드디어 드넓은 광장을 짙 채우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위력한 무기가 지축을 울리며 려이어 나아가다.

《11축이다!》, 《우리(화성포-17)형이 나온다!》, 《아, 대단하다》, 《행성이 쿵쿵 울리는것 같다》... 강국인민, 주체조선의 인민들이 행성의 누구도 가진적 없는 최강의 보검을 틀어쥔 자부심과 긍지를 연해연방 터뜨리었다.

에나 지금이나 이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없다. 하지만 어제의날의 조선과 오늘의 조선은 땅과 하늘의 차이이다.

117년전 조선의 국력은 화승대포로 이음할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주체조선의 힘은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이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세계가 총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거대한 힘을 어느분이나 마땅히 해주시겠는가.

이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긍지와 영광을 어느분이 안겨주시겠는가.

뜻깊은 그날 광장에 모인 군중들, 아니 TV로 그 격동의 장면을 지켜본 나라 인민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열병장주석단에 거연히 서서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보며 격정으로 눈물을 적시고 목이 터지도록 만세를 불렀다.

이 뜻깊은 날과 더불어 인민들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천하제일명장을 모시여 조선은 오늘날도 강하지만 래일에는 더욱더 강해질것이라고.

본사기자 전명진



중앙계급교양관에 재현되어있는 《을사5조약》날조현장

# 2022년 - 인민의 가슴마다에 더 깊이 새겨진 신념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같은 노동자들에게 이런 공경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정녕 이번 4월의 심야열병식은 탁월한 수령, 위대한 평장을 모셔야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강성명연한다는 철의 진리를 심장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이름없는 농장원인 제가 원수님께서 가정에서 몸소 마련하여 보내주신 상비약품을 받아 안았을 때 정말이지 솟구쳐오르는 뜨거운 격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우리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남새를 떨구지 않고 공급해주시러 나라의 중요인사까지까지 통채로 내어주시고 조국방선을 지켜선 인민군부대들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오늘과 같은 거대한 온실바다를 펼쳐놓았습니다.》

... 이것은 세상을 놀래우는 사변적인 기적들을 보면서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으며 공화국의 각계층 인민들이 러친 도로들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번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 경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한없는 고마움이 어려있다. 태양을 떠나 아름다운 꽃에 대해 생각할수 없듯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공화국인민의 값높은 삶과 행복, 밝은 래일이 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지난 10년간 공화국은 얼마나 위대한 변혁과 기적들을 창조하였는가.

뜻깊은 이해에만도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준엄한 역경속에서도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삶을 안겨주기 위한 사변적인 성과들이 연이어 이루어져왔다.

되돌아볼수록 가슴뭉툼함을 금할수 없다.

사회주의명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인 송화거리와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상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인 보통강안다락시주택구의 준공,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우와 함께 눈부신 불출기를 내뿜으며 만리창공으로 힘차게 솟구쳐오른 신형대륙간단도미사일 《화성포-17》형의 장쾌한 모습과 강대한 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축하 열병식, 악성비루스와의 총포성없는 방역전쟁에서 90여일만에 승리, 공화국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체택, 경사로운 10월의 명절과 더불어 성대한 준공의 날을 맞이한 련포은실농장, 황남명에 펼쳐진 농기개바다, 곳곳의 농촌지역들에 펼쳐지는 새집들이경사...

이 모든 기적적승리는 결코 하늘이 가져다준 우연도, 어느 누가 도와주어서 마련된것도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어떤 엄혹한 형세속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시고 완강한 공격전으로 국난을 타개하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고 세련된 령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올해의 총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철세의 애국자의 희생적인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들이다.

지금도 온 나라 인민들은 온한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위대한헌신의 길을 걸고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새해 정초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신데 이어 수많은 중요 당 및 국가회의들을 지도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 1월 련포은실농장건설예정지나 현지에서 료해하시던 그날에는 련포지구에 100정보은실과 농장살림집지구가 일떠서게 되면서 이 일대가 완전히 천지개벽되고 함흥시를 비롯한 함남도인민들의 식생활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농장, 당의 은실농장건설정책의 본보기, 표준이 되게 만점짜리로 일떠세우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확공식 그날에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포함하여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당은 인민들과 한제일 중요한 약속을 지키게 되며 우리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살림집건설의 확공을 알리는 발표목음이 2월의 봄하늘을 뒤흔들게 하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악성비루스와의 총포성없는 방역전쟁으로 홀리는 5월의 그날 우리 당중앙이 력사의 시련앞에서 다시한번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검증받을 시기가 왔다고,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쳐줘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하시며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방역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서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을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라며 천만인민은 그의 령도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갈 심장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이렇게 이해의 하루하루가 흘러왔다.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총성,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무한한 헌신으로 이어진 올해와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이다.

이 조선을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역척의 의지,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불같은 열망을 안으시고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의 날과 달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2022년은 위대한 사변과 기적들을 아로새긴 승리의 해로 빛나고 공화국의 앞길에는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본사기자 유금주



## ///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고 ///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렸다고 하시며

주체111(2022)년 3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완공을 앞둔 송진,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이날 원수님께서서는 살림집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거리의 전경이 정말 불만하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머지않아 인민들이 자기 손으로 준공예트를 끌고 보금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자신의 소망이 또 한가지 풀리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태양절까지 인민들이 새집들이를 할수 있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자고 뜨겁게

의 어머니만이 하실수 있는 말씀들을 들으며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그후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훌륭히 완공된 송진, 송화지구의 새 살림집에 사람들이는 행복한 삶의 길을 펴게 되었다.

새로운 형식의 주택구건설의 본보기

주체111(2022)년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보통강안다락시 주택구를 돌아보시었다.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각 부문의 로력력신자, 근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사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해전 경치좋은 수도중심부의 보통강기슭 명당자리에 다락식, 다층, 소중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특색있는 주택구를 일떠세우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었다. 그리고 수많은 설계형성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사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해전 경치좋은 수도중심

부인 보통강기슭 명당자리에 다락식, 다층, 소중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특색있는 주택구를 일떠세우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었다. 그리고 수많은 설계형성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사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해전 경치좋은 수도중심부의 보통강기슭 명당자리에 다락식, 다층, 소중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특색있는 주택구를 일떠세우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었다. 그리고 수많은 설계형성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사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해전 경치좋은 수도중심

본사기자

《경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로 조건의 불배의 힘의 원천이 있다.》(에티오피아신문 《포춘》)

《김정은각하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리상적인 국가령도자이시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애민형의 정치가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일관하게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신다.》(브라질신문 《아구아 베르레》)

《조선에서는 모든것이 《우리》라는 말과 더불어 불리우고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의 대가정속에 살고있다. 조선사회의 가장 큰 위력은 바로 일심단결이다.》(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경도자는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는 혼연일체로 조건의 불배의 힘의 원천이 있다.》(에티오피아신문 《포춘》)

《김정은각하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리상적인 국가령도자이시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애민형의 정치가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일관하게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신다.》(브라질신문 《아구아 베르레》)

《조선에서는 모든것이 《우리》라는 말과 더불어 불리우고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하나의 대가정속에 살고있다. 조선사회의 가장 큰 위력은 바로 일심단결이다.》(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본사기자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에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여

# 조선사람은 차림새도 행동도 조선사람의 맛이 나게 해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고 고상한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빛내이도록 일꾼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체38(1949)년 4월 25일이었다.

이날 일꾼들과 함께 한 일꾼의 병문안을 하고 마당으로 나오시던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부르시어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옷차림을 보니 봄기운이 확연합니다.》

그때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흰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산뜻하게 받쳐입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환히 웃으시며 곁에 서있던 내각 문화선전상에게 물으시었다. 《어떻습니까?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동무의 옷차림새가 보기 좋습니까?》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동무에게는 조선치마저고리가 잘 어울립니다.》

《조선치마저고리가 참 좋습니다. 치마저고리를 입으면 몸매가 늘씬하게 보입니다.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좋습니다.》

확실히 조선녀성들에게는 치마저고리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수령님으로부터 과분한 평가를 받게 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너무나 황송하여 얼굴을 붉히며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는 그녀를 그들 한동안 대견히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우리자신들이 잘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 조선옷이나 양복을 입을 수 있다. 머리단장도 나이와 취미, 머리생김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하시며 그런데 지금 일부 녀성들

은 머리칼을 노랗게 물들이고있는데 이것은 조선사람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시었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선사람은 조선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살려 차림새도 행동도 조선사람의 맛이 나게 해야 합니다. 시대주의에 물러가는 사람은 우리의 우수한 민족문화와 풍속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게 되고 혁명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라고 교시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일꾼들은 저도 모르게 자신들의 옷차림새를 살피고있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차림새 하나를 보시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잃지 않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 절세위인들과 총련

## 대를 이어 전해가는 아버지사랑

오랜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많은것이 사라지고 잊혀지지만 아무런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고 대를 이어가며 영원히 전해지는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하늘같은 은정이다.

지난 8월 총련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에서는 교직원, 학생들과 재일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 학교 학생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되새기는 모임이 진행되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주체61(1972)년 8월 18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여름방학을 리용하여 조국을 방문한 도교조선중고급학교 추수소조와 요코하마조선초급학교 음악무용소조원들을 만나주시었다.

궁전극장에 이르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복받쳐오르는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목메어 민선의 환호를 울리며 품에 안기는 재일청소년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면서 울지 말라고, 대장부가 울면 되느냐고 달래시었다. 그러시면서 세계대검으로

들러서있는 어린이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두볼을 감싸주시기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아이들이 모두 똑똑하고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하시며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살인가, 아버지, 어머니들은 다 잘 있는가고 일일이 물어주시었다.

이어 재일동포들의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국방향을 찾아오게 된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형편과 사회주의건설성공에 대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이날 재일청소년들은 아버지수령님께 드리는 자기들의 다짐같은 호모와 감사의 정을 다채로운 춤과 노래에 담아 무대

에 올랐다.

공연이 끝나자 아버지수령님께서 는 그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고 친히 무대에 오르시어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리신 후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그들모두에게 수여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는 손수 함을 여시고 시계에 흠집이라도 있을새라 다시 살펴보신 다음 어린이들의 손에 하나하나 쥐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세계대검으로

는 기념으로 차고다니라고, 시계 끈이 커서 아이들에게는 안맞을수도 있는데 잘 보관하였다가 큰 다음에 차도 된다고 은정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는 그러시고도 부족하신듯 이틀후에 그들에게 또다시 사랑어린 귀중한 선물들을 안겨주시었다.

학생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받아안은 선물가운데는 자나깨나 그리운 아버지수령님의 탁상형형초상화와 립제사진 《만경대고향집》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화첩 그리고 인상과 사랑, 과거, 오감, 구두, 녀학생들을 위한 다색단과 목수건 등이 들어있었으며 여러가지 민족악기들과 그들이 다니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보내시는 5 000권의 고급학습장과 1만자루의 연필까지 들어있었다.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배려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은정을 전하는 이야기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총련일꾼들은 오랜 기간 이국 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고있다고, 조국의 흠새가 나는 시류물들이 좋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인사도 보내주고 꽃도 보

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뜻깊은 명절마다 사랑의 선물들을 가슴가득 안겨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이다.

언제인가는 친히 총련일꾼자녀들의 합숙을 찾으시어 그들의 학습과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피주시고 설명절을 비롯한 기념일에는 귀중한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시었으며 처음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단이 《만경대》호를 타고 조국에 왔을 때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기념으로 필한 물건들 몇가지 주면 되지만 이국땅에서 고생하며 싸우는 우리 동포들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하시면서 친히 선물명세에 인상을 더 넣도록 하여주시었다.

진정 총련일꾼들과 해외동포들,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한 품에 안으시어 사랑과 은정만을 쏟아부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하기에 오늘도 총련일꾼들과 재일동포들은 아버지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길이길이 전해가며 총련부흥과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을 곳곳이 이어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 민족의 단합과 변명을 위한 길에서

## 한 해외동포가 찾은 인생전환의 길 (3)

평양방문후 립창영선생의 활동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보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은 선생의 마음은 그의 위대한 애국애족의 위업을 만들어갈 의지로 충만되어있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선생이 서있었다.

1977년 6월 선생은 반독재민주화투쟁단체들을 망라한 《민주민주국민련합》을 결성하고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77년 8월부터 1981년까지는 《민주민족통일해의한국인련합》(《한민련》) 수석의장으로, 1981년부터는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1987년 8월부터 《민주

민련》을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조직한 《한겨레운동민주련합》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선생은 《한민련》결성모임에서 《죄없는 사람들에 대한 처형 등 박정희(정권)이 자행하고있는 기만과 폭력행위는 헤아릴수 없는것이며 이와 같은 사태의 시정도 본련합의 사명》이라고 밝혔고 《해외한국인 민주운동대표자회의》에서 한 보고에서는 박정희(정권)이 떠벌이는 《공산침입의 위협은 종신집행을 누리려고 하는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였다.

선생은 미국이 박정희(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것을 요구

하여 백악관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1980년 5월이후에는 광주대학살행의 진상을 밝히고 전두환군사파쇼도당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주장하였다.

《미국 선생은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주지역 민주화운동가 계보》라고 불리었다.

립창영선생은 1983년 1월 《한민련》확대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반외세, 민족자주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릴것을 호소하였으며 그해 5월에는 민족문제복미추대의동포회의소집을 발기하고 회의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한련 선생은 미국대통령과 미국의 정계, 사회계 중요인물들에게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편지들을 보내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위와 서명운동도 적극 벌렸다.

선생은 특히 조국을 방문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사실과 그의 높이신 덕망에 대해 동포들에게 늘 말해주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은인,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받들었다.

본사기자 전영민



반과쇼민주화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의 대학생들

##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도교지역의 녀성동맹조직들이 조선학교 학생수를 결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

총련 도교조선제9초급학교를 맡은 녀성동맹지부에서는 지역의 학생전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활동을 벌

리고있다. 우리말쓰기, 수수께끼, 틀린그림찾기 등 지능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이 수록된 문제집들을 학생전어린이들이 있는 가정들에 보내주는것이다.

총련 이바라기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는 해마다 고급부 학생들의 대상으로 《진정한 조선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학생들이 언제나 조국을 몸가까이 느끼게

하고 조선민족의 당당한 성원으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 벌리는 활동이다.

《우리의 력사》, 《우리를 둘러

민족교육에 힘을 넣어

문제집의 내용들은 어린이들의 심리특성에 맞게 짜여져 있다. 이 사업은 약성전염병의 대류행으로 하여 여러 행사가 열리지 못하게 된 조건에서 이곳 지부일꾼들이 착상

한것이다. 어린이들모두가 문제집을 끝내고는 새 문제집이 도착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기쁨도 크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꼭 민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애국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겠다.》, 《조국과 동포사회를 위한 길에서 청춘을 빛내이겠다.》... 본사기자

총련의 모든 조직들이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사업의 제1순위에 놓고 학교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운동을 일관하게 벌리는 한편 학생들에 대한 교양에 힘을 넣어 민족교육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과시되도록 하고있다.

한것이다. 어린이들모두가 문제집을 끝내고는 새 문제집이 도착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기쁨도 크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꼭 민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애국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겠다.》, 《조국과 동포사회를 위한 길에서 청춘을 빛내이겠다.》... 본사기자

《애국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겠다.》, 《조국과 동포사회를 위한 길에서 청춘을 빛내이겠다.》... 본사기자

《애국의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겠다.》, 《조국과 동포사회를 위한 길에서 청춘을 빛내이겠다.》... 본사기자



민족교육의 회원에서 역세게 자라나고있는 재일동포학생들

## 무모하고 비렬한 반공화국, 반총련소동

최근 일본에서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섬나라것들은 지난 11월 3일 공화국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일본령도상공을 통과했다고 사실을 오도하면서 미야기현과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에 경보체제를 가동시키는것과 함께 언론보도를 통하여 반공화국여론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 있다.

일본것들은 지난 2월과 3월에도 남조선미국일본외교장관회의와 합참의장회의에서 공화국의 군사적조치들에 대응하여 조선반도주변에서 남조선미국일본합동군사연습을 벌릴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에는 조선동해상에서 미국, 남조선호전광들과 대규모의 련합함정합동훈련을 벌려놓았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미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간》호 라격집단을 끌어들여 조선 동해에서 남조선미국일본해상련합훈련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그러나 하면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벌린 사상 최대규모의 《비질런트 스톰》 련합공중훈련에 일본 이와구니미군기지의 스텔스전투폭격기 《F-35B》를 비롯한 수 많은 전투기들이 참가하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었다.

한련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와 학생들, 총련기관들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사건들을 련이어 일으키고있다.

이것은 섬나라쪽속들이 미국,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한 전쟁책동에 광분하면서 반공화국, 반총련, 조선인베타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섬나라것들이 입에 거저품을 물고 결코드는 공화국의 군사적조치들로 말하면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 일본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침략책동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생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조치이다.

일본반동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반공화국전쟁책동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공화국의 군사작전을 놓고 위협을 느낄 아무런 리유도 없다. 도박이 제 발자욱에 놀란다고 《북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드는 섬나라쪽속들의 행위는 저들이 벌리는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따른 과도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 히스테리적광태이다.

그리고 반공화국, 반총

련, 조선인베타소동은 제침야망실현을 위한 추악한 광란이다.

력대적으로 섬나라쪽속들은 당치않은 구실을 내대며 타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 살인과 폭행을 일삼았다.

수백년전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린다.》는 구실로 조선을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키어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우리 민족의 재부를 약탈한것도 섬나라것들이었다.

이런 잔혹하고 파멸적하며 야만적인 섬나라쪽발이들이 오늘날은 그 무슨 《북핵 및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 조선인베타소동을 벌리며 또다시 중국주의부활과 제침의 길에 나서고있다.

지난 10월 4일 도교조선중고급학교 중학생이 학교중



일본반동들은 총련기관들에 대한 강제수색을 감행하였다.

## 《인권유린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합동전쟁연습을 중단하라》

—미국에서 일본정부와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는 시위진행—

보도에 의하면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뉴욕위원회(6.15뉴욕위원회)가 재일동포학생들을 차별하는 일본정부의 민족차별정책과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리었다.

시위에는 《뉴욕홍사단》, 《뉴욕민화협》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 어리석은 권사적기본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합동참모본부제정안》을 립법하여 그 무슨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라는것을 신설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 임무수행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떠들고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형3축라격체계》의 지휘와 운용구조 등의 불합리성을 피치하여 《북진제타격》을 골자로 하는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 어리석은 군사적기본에 따른 또 하나의 가스로운 대결망동이다.

공화국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3축라격체계》는 오래전부터 실시간감시와 정찰, 식별과 분석, 추적과 요격, 타격의 정밀성, 다량발사된 미사일들에 대한 처리능력 등에서 허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남조선군내부에서까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혹평을 받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북침전쟁연습들에서 드러난것처럼 이 체계의 핵심이라는 미사일들이 불발되거나 락탄되었고 미사일조기경보체계 역시 다발적, 다각적인 미사일들을 탐지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내외의 비난과 조소거리로 되었다.

발육같은 미숙아, 눈논 청명과 나와 같은 기능상실의 체계와 고철덩이같은 무기들, 제각기 놀아대는 오합지졸 군부장관들의 취약성과 허점을 그 무슨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 같은것이내내온다고 없앨수 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오산이고 이러한 부실하기 그지없는 체계와 무기를 가지고 최강의 핵보유국과 맞서보겠다는 것 또한 망상중의 망상, 만용중

의 만용이다.

역적패당이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를 신설하려 하는것은 역도의 집권《공약》인 전략사령부창설을 무난히 추진해보려는 기도와도 관련된다.

남조선내부에서 《한국형3축라격체계》로도, 전략사령부의 전신이 될수 있는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로도 《북의 핵 및 미사일공격을 탐지, 요격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급격히 발전하고있는 북의 미사일능력에 남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상대를 오관하고 무모하게 설친다면 그것으로 언을것은 가련하고 비참한 종말뿐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공화국과 맞설 공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공화국의 전쟁역적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스려 한다면 그러한 무모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중지박산날것이다.

남조선내부에서 《한국형3축라격체계》로도, 전략사령부의 전신이 될수 있는 《핵 및 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로도 《북의 핵 및 미사일공격을 탐지, 요격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급격히 발전하고있는 북의 미사일능력에 남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상대를 오관하고 무모하게 설친다면 그것으로 언을것은 가련하고 비참한 종말뿐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인권유린자들의 추악한 망동

윤석열역적패당이 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공화국의 밝은 현실을 가리울수 없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인 공화국에는 애당초 《인권문제》란 없고 있을수도 없다.

인민이 자기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기의 지향과 요구를 정책에 담야 실현하고 그구나 로동할 권리, 배울 권리, 휴식할 권리를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정당히 행사하며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인민의 세상이 바로 공화국이다.

당과 국가의 중요회의들에게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채택되고 송화거리와 보통강간다락시주책구를 비롯하여 현대문명이 응축된 인민의 이상거리, 선경마을들과 련포농실농장과 같은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 격동적인 화폭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민들의 로동당면대, 사회주의만세소리, 인민대중제일주의사회인 공화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정의와 진실,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정하는 추악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는 다름아닌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이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자유는 한갓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역적패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공정과 상식》의 간판을 들고 근로대중이 아니라 사회의 1%도 안되는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제아무리 악랄하게 벌려도 인민의 존엄과 지

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공화국의 밝은 현실을 가리울수 없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인 공화국에는 애당초 《인권문제》란 없고 있을수도 없다.

인민이 자기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기의 지향과 요구를 정책에 담야 실현하고 그구나 로동할 권리, 배울 권리, 휴식할 권리를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정당히 행사하며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인민의 세상이 바로 공화국이다.

당과 국가의 중요회의들에게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채택되고 송화거리와 보통강간다락시주책구를 비롯하여 현대문명이 응축된 인민의 이상거리, 선경마을들과 련포농실농장과 같은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 격동적인 화폭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민들의 로동당면대, 사회주의만세소리, 인민대중제일주의사회인 공화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은 정의와 진실,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전면부정하는 추악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는 다름아닌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이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정치적권리와 자유는 한갓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역적패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공정과 상식》의 간판을 들고 근로대중이 아니라 사회의 1%도 안되는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제아무리 악랄하게 벌려도 인민의 존엄과 지

## 화는 입으로 나온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라는 뜻일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역도의 입이라는것은 자기에게 닥치게 될 온갖 화를 스스로 쏘아놓는 《관도라상자》 같은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얼마전 동아시아지역을 행각한 역도가 공화국의 자주적권리행사와 자위적조치들에 대해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떠들며 미일상전에게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의 대북화장역적체제구축》과 《공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 저들의 대결정책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구걸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윤석열역도가 《도발》이

니, 《위협》이니 하며 걸고든 공화국의 군사적조치들로 말하면 의외와 야합하여 시시각각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는 역적패당의 북침전쟁책동에 대응한 지극히 정정당당한 자주권행사이고 자위적조치라는것은 내외가 인정하는것이다.

그리고 역적패당이 《년례적》, 《방어적》으로 묘사한 전쟁연습들이 《선제공격》, 《참수작전》 등 훈련의 내용들이 보여주듯 북침을 노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라는것도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역도의 반공화국대결, 사대매국정책때문에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이 격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윤석열은 퇴진하

라》, 《퇴진이 곧 평화》라고 성토하고있는것이다.

역도와 그 패당이 떠드는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이라는 꾀변은 공화국의 주권과 체제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정치적도발이고 도전이며 버릴수 없는 대결광, 호전광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꾀변에 불과하다.

집구석에서는 허세를 부리며 위험천만한 전쟁소동에 열을 올리고 집밖에서 나가면 입부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망발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역도이다.

이번에 윤석열역도가 해외연단에서 그 무슨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제적지지》를 얻어보고자 하는 구걸질을 한것도 그에 대한 하나의 실증이다.

이미전에 남조선 각계층과 미국의 패권전략과 북침

행적책동의 머슴꾼인 호전광, 반공화국제압파공조에 매달리는 대결광, 영망인 집안골은 아랑곳없이 해외를 돌아다니며 해괴한 추태만을 일삼는 정치시정배로서의 윤석열역도의 본색을 다시금 드러내듯이 바로 역도의 이번 동아시아행각이었다.

다시말하여 대결과 사대에 쪼든 역도의 추악성을 날날이 드러낸 대결행각, 매국행각이며 수처와 굴종을 발뺌하는 정치무능의 망성행각인것이다.

그것이나 입만 벌리면 대결악담이고 사대망발만 늘어놓는 윤석열역도의 구르고구린 입이 참 문제이다.

그리고 그 더러운 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역도의 지능지수 또한 문제중의 문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윤석열역도는 악취풍기는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다가는 더 큰 분봉을 당하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리기영



최근 남조선내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때문에 북남사이에서 무력충돌이나 《주부전쟁》까지 일어날수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면서 역적패당이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연한 주장이 아니라,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최악의 정세는 전적으로 미국과 함께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미쳐날뛰는 윤석열역적패당에게 책임이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역적패당은 권력의 지리에 올라앉기 바쁘게 공화국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미국상전

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재개 및 확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 《확장적전략협약》의 재가동에 합의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무모한 전쟁대결책동에 매달려왔다.

최근에만도 미국과 대규모 연합공중전쟁연습인 《비블리언트 스톰》을 벌린데 이어 《2022 태극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며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지역을 돌아치며 미국, 일본것들과 반공화국군사적결탁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망동을 부

리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기 마련이다.

결국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윤석열역적패당의 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정경으로 치닫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의 경제파탄과 민생위기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안보》불안을 날로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은 윤석열《정권》의 전쟁대결정책은 누워서 침뱉기와 같은 어리석은것이다. 남조선을 파멸로 몰아가는 《대북강경

정책》을 걸어치워야 한다고 하면서 반전평화, 반윤석열투쟁에 총력하고있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 처지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치다가는 비참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남조선내부에서 일어나는 《대북강경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심중히 듣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부연하건대 미국도 두려워하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공화국과 힘으로 맞서보겠다는것이야말로 제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리종국

불행과 재앙만을 몰아오는 《참사정권》

《(국정)철학과 미래의 전망은 없고 (참사정권)이라는 오명만 각인시켰다.》,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참사)로 귀결됐다.》, 《이제 겨우 임기의 10분의 1이 지났을뿐인데 국민들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있다.》... 이것은 윤석열역도의 집권 6개월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평가와 분석이다.

우연한것이 아니다.

역도의 집권기간 민생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다던 역도는 심복들과 친인척들로 몽그려놓은 《동아리정부》를 만들어놓고 저들의 안일과 부패를 위한 파초독제를 구축하는 데만 골몰하였다.

《국민생명의 안전과 보호가 제1책부》라고 입버릇처럼 외위대던 윤석열《정

권》은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가 꼬리를 물고 들어닥다. 가계부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민생이 아수성처도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하고 위기에 위기만 덧쌓고있다.

민생은 이 꼴인데도 역적패당은 추악한 대결정치로 남조선사회에 분열과 혼란만을 야기시켜왔다.

야당파의 《소통》, 《협치》는 불통, 독재통치, 정치보복으로 되었고 민생을 혼란하는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더욱 악명을 떨치고있다.

역적패당은 저들의 비유에 거슬리는 언론들에 대한 탄압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최근 언론 《MBC》에 대한 탄압광풍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새는것처럼 해외에 나가서도 외교무능, 외

교참사만 엮어놓은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총체적으로 윤석열역도는 남조선에 경제위기, 재난위기, 민생위기, 외교참사, 전쟁위기 등 온갖 위기와 재앙만 몰아오는 화근이다.

윤석열역도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나쁜짓만 골라하는 불망중, 망나니로 락인찍힌 인간추물이다.

머리에 든것은 없고 지속하고 덜덜떨어는 이런자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으니 남조선이 온통 엉망이 되고 앞날이 캄캄해질수밖에 없는것이다.

—독초는 뿌리채 뽑아던져야 한다.—

위기관 몰아오는 화근— 윤석열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얼마전 윤석열역적패당이 해외행각을 떠나면서 《MBC》취재진의 《대통령》전용기탑승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당 언론사의 외무, 권파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구구히 변명해나섰다.

하지만 역적패당의 조치는 일종의 정치보복, 언론탄압이라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평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력들은 윤석열역도가 군사독재시기의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명백히 《보도자유》에 대한 침해,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볼수 있는 행위, 치졸하고 비렬한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해나섰다.

언론로동조합, 기자회견을 비롯한 8개 언론단체들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적패당이 저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대한 개인복수에 매여달라고 보도되면서 국제적인 물의를 일

## 오늘도 타오르는 불길

살았다면 이제는 중순도 보았으련만 52년전, 꿈같은 그 나이에 스스로 제몸에 불달아 약정에 합거한 남조선의 전태일

그 웨침은 남조선로동자들 전체의 웨침이었고 그 웨침은 《유신》독재멸망 부른 퇴성이었거니 오, 청계천기슭에서 타올라 남조선 각계층의 마음들에 지져진 그 불길

활활 타는 불속에서 터져나오던 남조선로동자들의 분노의 웨침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살고싶다

남조선땅을 휩쓸던 료원의 그 불길 세월이 흘러 반세기가 넘어도 정녕 꺼질줄 모르는 그 불길

오늘도 마초처럼 내몰리우는 남조선의 수백만 전태일들이 철탑우에서, 거리와 광장들에서 웨친다 —이대로는 살수 없다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서자

아, 《유신》독재 통가하는 윤석열역적패당 그 교활하고 극악한 반역세력 그냥 두면 로동자들의 미래가 없네 전태일의 몸과 정신이 실릴될 그날까지 투쟁의 불길은 더 거세차게 타오르리라

본사기자 황금숙

본사기자 김정혁

본사기자 주광일

본사기자 김정혁

본사기자 배영일

본사기자 황금숙

